

연구논문

군중의 폭력과 희생의 신화

〈한네의 승천〉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김남석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국문학 전공

darkjedi73@naver.com

I. 서론: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II. 희생양 메커니즘의 이론적 배경: 모방의 욕망과 집단의 위기

III. 희생양 생성 과정과 결말의 도정

IV. 희생양으로서 만명의 위상과 의미

V. ‘승천’의 의미와 ‘희생’의 신성화: 희생자의 신격화와 공간의 신성화

VI. 결론

I. 서론: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오영진은 한국 현대 연극과 영화 시나리오의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로서, 그의 작품은 한국적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텍스트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한네의 승천>은 한국적 정서와 전통적 공동체 질서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 역시 이 작품을 민속적 의례나 전통적 가치 체계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¹ 이러한 연구들은 작품의 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서사 속 갈등 구조와 집단 내부에서 작동하는 폭력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겼다.

실제로 <한네의 승천>의 서사를 면밀하게 살펴보면,² 서사의 중심에는 전통적 의례나 공동체적 조화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안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집단적 폭력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 작품 속 마을 공동체는 겉으로는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관계의 균열, 개인 욕망의 충돌, 사회적 위계의 긴장 등 다양한 갈등이 누

-
- 1 권오만, 「오영진의 삼부작에 대하여: 구비문학과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8(1972); 김승욱, 「〈한네의 승천(昇天)〉의 제의구조(祭儀構造)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105(1991); 裴源龍, 「說話의 現代的 受容과 變容: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6(1994); 김윤미, 「〈한네의 승천〉에 나타난 한국적 영상의 의미 연구: 오영진의 시나리오와 하길중의 영화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28(2008); 유민영, 「정치에 희생된 인텔리 극작가」, 한국극예술학회(편), 『오영진』(서울: 연극과인간, 2010); 서연호, 「웃음의 미학 혹은 비판적 투시」, 한국극예술학회(편), 『오영진』(서울: 연극과인간, 2010); 이상우, 「오영진의 글쓰기와 민족주의: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한국극예술연구』 35(2012); 안재석, 「새 세대가 만든 새 영화: '영상시대'의 작품 경향」, 『씨네포럼』 14(2012).
 - 2 이 연구에서는 오영진의 원작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영화 <한네의 승천>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다만 분량상 영화의 장면은 논의의 확장을 요하는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오영진, <한네의 승천>, 이근삼·서연호(편), 『오영진 전집 4』(서울: 법한서적주식회사, 1989); 오영진 원작, 하길중 감독, <한네의 승천>, 한진홍업(주), 1977.

적되면서 점차 포화 상태로 치닫는다. 이러한 갈등은 공동체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결국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점차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의 대상에게 폭력을 집중시키고, 그 폭력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 즉 이 작품의 서사 구조는 공동체의 화합이나 전통적 질서에 매몰되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위기가 특정 개인의 희생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 서사 구조를 충분하게 논구하지 못했다. 선행 연구는 주로 전통적 의례나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였다. 〈한네의 승천〉이 보여 주는 집단 폭력의 구조와 그 정당화 방식이 작품 해석을 위한 핵심 관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이 주변적 요소로 간과되거나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혐의가 잔존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네의 승천〉을 단순히 한국적 전통을 재현한 작품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특정 인물에게 전가하고 그 희생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메커니즘을 담보한 텍스트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의거하면, 〈한네의 승천〉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가 제시한 희생양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작품이다. 르네 지라르는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심화할수록 그 구성원들이 갈등의 원인을 특정 개인(들)에게 찾아 해당 개인(들)을 제거하거나 희생시키는 처벌을 통해 집단의 안정과 내부 결속을 회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한 존재로 비난받는 동시에, 그리고 모순적으로 공동체 질서를 회복시킨 존재로 승격(신화화)되기도 한다. 그러니 희생양 메커니즘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이 어떻게 특정 개인에게 집중하고, 그 폭력이 다시 공동체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전환하는가를 설명하는 요긴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한네의 승천〉의 서사를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논구할 경우, 작품의

갈등 구조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내부의 위기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집단적 폭력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한네와 만명은 집단에 속하면서도 그 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계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공동체의 불안과 갈등이 투사되어도 무방한 인물로 애초부터 설정되어 있었다. 특정 시기 마을 공동체는 이들을 점차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 처벌(희생)을 통해 내부의 긴장을 해소한 조건을 확보해 놓은 셈이다. 더 나아가 결말에서 활용되는 ‘승천’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폭력의 결과를 신성한 사건으로 전환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공동체가 행한 폭력을 신화적 맥락 속에 은폐하는 역할을 더욱 철저하게 돕는다.

이에, 이 연구가 제기하는 핵심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네의 승천〉에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가. 둘째, 한네와 만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전락되는가. 셋째, 작품의 결말에서 제시되는 ‘승천’이라는 서사는 공동체 폭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이후에 신화화하는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는 〈한네의 승천〉을 한국적 전통의 재현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공동체 폭력과 희생의 구조를 드러내는 서사로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II. 희생양 메커니즘의 이론적 배경: 모방의 욕망과 집단의 위기

르네 지라르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복사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했다.³ 인간의 욕망은 자율적인 동력에

3 르네 지라르(저), 김치수·송의경(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서울: 한길사, 2001), 39~408쪽.

의해 추동되지 않고, 타인을 닮으려고 하는 욕망에 의해 생성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욕망을 ‘모방 욕망(mimetic desire)’이라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 욕망은 무차별화 현상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갈등으로 번져 나갈 우려가 발생한다. 공동체 내부에서 욕망의 복사를 동일하게 반복해 나갈 경우, 개인 간의 문제가 집단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결국에는 집단이 긴장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르네 지라르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모방적 위기(mimetic crisis)’라고 별도 규정했으며,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면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규범과 차이가 무화되며 집단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이 증폭된다고 보았다.⁴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안이 가중되면 공동체는 통제할 수 없는 질서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 방안은 내부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 방안은 대개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수렴된다. 르네 지라르는 집단이 희생(양)을 선택할 때만 자신들이 직면한 위기를 가라앉히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폭력성과 대립성을 약화시킨다고 확신했다. 가중된 폭력성을 집중시킬 희생양의 등장만이 집단의 분열과 대립을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리하면, 모방적 갈등은 개인의 경쟁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이어서 공동체적 갈등이 확대되면, 해당 집단은 내부를 통제하고 고조된 폭력성을 해소할 방안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도용하는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이 메커니즘이 발동하면, 희생양은 처형 혹은 추방되는 처벌을 당하지만 공동체로서 해당 집단은 다시 갈등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⁵

4 르네 지라르(저), 김진식·박무호(역), 『폭력과 성스러움』(서울: 민음사, 1993), 62~102쪽.

5 르네 지라르(저), 김진식(역), 『희생양』(서울: 민음사, 1998), 102~114쪽.

자연스럽게 희생양 메커니즘은 고대 희생 제의부터 시대와 지역을 넘어 끊임없이 존속하며 현재까지 그 명맥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 서사와 영상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속성을 직간접적으로 다루었고, 그로 인해 많은 작품에서 사회의 본질과 인간의 양면성, 나아가서 문명의 비밀을 밝히는 주요한 소재로 취급되었다. 한국의 문학과 영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오영진 문학과 관련하여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의 실체를 대입하고자 한다. 다만 논문의 규모와 일관성으로 인해 〈한네의 승천〉에서 그 구조적 특성을 살피고자 하며, 기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되 필요에 따라 영화의 구조와 미학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오영진은 인간 사회가 고수한 자체 유지의 방식과 폭력의 정화 의식을 문학 작품에 수용하는 작업에 적극적이었고, 그러한 작품 중에서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은 뚜렷하게 그 의미와 문학사적 의의를 보여 주는 경우라고 하겠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고대 신화와 종교 의례뿐 아니라, 오래된 서사와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과정은 단순한 서사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가 폭력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욕망의 모방적 성격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갈등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희생양 생성 과정과 결말의 도정

〈한네의 승천〉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은 가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한네의 자살이나 만명의 실의(失意)가 자발적인 행동이나 선택으로 여

겨지도록, 그 구조적 메커니즘이 숨겨졌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네의 승천〉에서 군중과 집단은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은폐하는 데에 성공했고, 그로 인해 한네와 만명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희생양과 관련 없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따라서 두 인물의 진실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으며, 은폐된 진실과 숨겨진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1. 희생양 한네와 경계인 요건

〈한네의 승천〉에서 한네는 외지인으로 나타난다. 만명이나 제주의 생각대로, 한네가 만명 모친의 환생이라고 해도 그녀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한네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만명의 집에 기거한다. 만명의 집이 마을 외곽에 있고 그 역시 마을 사람들과 외부 사람의 경계에 머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네 역시 만명과 같은 위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한네는 분명 집단 내부에 기거하고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과거의 내부인으로 인식되지만,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되지 않고 완벽하게 내부인의 위상을 부여받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로 남는다. 그녀의 이러한 집단 내 위상은 경계인의 표상과 다르지 않다. 그녀는 집단의 내부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외부와의 경계를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집단 내 구성원에 완벽하게 동화되지 못한 상태로써 경계적 존재, 경계인(marginal man)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경계인은 두 문화권 혹은 두 사회의 경계에 위치한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어느 한 문화(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중간적 인간형을 가리킨다. 그들은 어느 한 문화나 사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양자의 성향을 동시에 담보하거나 두 성향 모두에서 벗어난 제3의 성향을 견지한다. 그래서 학술적인 개념으로 바라본 경계인은 인간의 이동과 문

화 접촉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나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인간 유형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볼 때 산출될 수 있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경계인이 양자를 바라보는 해당 문화(권)는 비단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충돌하거나 비타협적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의 관점을 통해 집단과 공동체가 마주하는 긴장과 갈등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즉 만명의 마을이 고수하는 문화적 식견과 외부에서 진입한 한네 사이에서 생겨나는 입장 차는,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이질적 체계를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 체계는 동시에 자신들의 질서를 강조하는 집단적 폭력의 힘을 동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을 사람들은 한네가 보여 주는 시각차로 인해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한네에게 적대감을 쏟아 낼 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아가서 해당 문화들은 단순히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종종 서로 충돌하는 가치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경계인은 서로 다른 규범과 기대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마을로 진입한 한네와,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자신만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마을 주민들의 가치 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네에 대한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만일 집단과 맞서서 자신의 시각과 신체적 자유를 상실하고 목숨과 신념을 목살당하는 상태를 한네의 처지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한네의 처지는 ‘벌거벗은 생명’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벌거벗은 생명이란 집단 내부에 분명 존재하며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어느 순간 그 집단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가리킨다.⁶

6 조주현,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한국여성학』 24-4(2008), 42~58쪽.

특히 <한네의 승천>에서 한네를 축출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나 제주의 강간으로부터 한네가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은, 그녀-한네가 공동체의 공백 지대, 즉 법률의 무법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마을 공동체는 다수 집단을 형성하며 한네를 예외적 존재로 간주했는데,⁷ 이로 인해 그녀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권리는 사라진 상태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가 벌거벗은 생명에 근접한 상태라는 점을 서사적으로 부연한다고 하겠다.⁸

한네의 전신을 만명의 모친으로 간주해도 이러한 정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거 만명의 모친 역시 마을의 질서와 보호에서 벗어나 경계 밖으로 방치되었던 인물이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중 나이 든 사람들은 한네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회를 드러낸다. 과거에도 제주는 만명의 모친, 즉 한네의 전생을 강간했으며, 그 결과 여인은 만명을 출산했다.

그런데도 만명의 모친은 결국 경제적 문제로 만명까지 버려야 했고,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떠나야 했다. 만명의 모친은 외로운 신세였고, 궁극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였다. 그녀는 아들 만명이 마을 사람들, 특히 제주에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축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만명 모친의 결단과 처사는 기존 마을 질서가 제주 중심으로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이 고수하는 질서 내에 자신, 즉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만명 모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7 하용삼·배윤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 G. 아감벤의 국민·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2(2013), 92~93쪽.

8 <한네의 승천>의 원작에 해당하는 <진상>에는 공동체의 합의에 밀려 서 씨(한네에 해당하는 여인)가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한네의 승천>에서는 이 과정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그려졌다면, 그 원작 격인 <진상>에서는 권력자와 공동체의 암묵적인 협의가 여인을 고립화시키고 안정된 지위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상우, 앞의 논문(2012), 129~148쪽.

따라서 그녀—한네이자 만명 모친으로 양자성을 지닌 여인으로서—는 전신과 후신의 양쪽 상태에서 모두 마을 안에 기거하기는 했지만 끝내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으로 전락해야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고, 두 여인의 삶은 모두 마을 사람들과 권력자 제주에 의해 피폐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경계인이자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여인의 삶은 희생양의 자리와 일치한다.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간택되는 희생양은 완전하게 외부인이기보다는 이미 집단 내부에 잠입하여 일정한 위치를 부여받은 경계인이었다. 그들은 집단의 알력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충실하고 당당한 이웃이었지만, 모방 욕망이 승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내 이방인 혹은 집단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차이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조건 짓는다.

집단이 공포와 분열의 위기에 매몰되려고 할 때, 희생을 꿈꾸는 다수가 희생양 간택 조건으로 주목하는 바는 범죄의 유무가 아니라 차이의 유무에 가깝다. 왜냐하면 희생양은 공동체의 불안을 해명하고 나아가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표지, 즉 희생양의 낙인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타자화된 한네는 공동체가 자기 내부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정 인물에게 과잉 부여한 차이의 결과를 담보한 대상이다.

한네에게 덧씌워지는 희생양 낙인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가시화된다. 유사시에는 그저 성격적 특수성, 행위의 이질성, 정서적 거리, 사회적 위치의 애매함 등으로 간주되었을 개인적 성향(특성)들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자 위협 요인으로 주목되기 시작하고 공동체 전체의 불안과 연계되어 확산된다. 한네가 ‘읍내 술집 여자’였다는 쇠돌네의 비방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술렁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평소에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을 이러한 징후들은, 제사라는 예민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불안과 위협의 과장된 표출로 불거졌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한네의 차이는 더 이상 단순한 차이로 남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한네와 자신들의 차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려 했고 그 결과를 부풀려 자신들이 원하는 해석으로 이끌려 했다. 한네를 ‘우리과 같은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과 다른 존재’로 재정위하는데, 이러한 재정위는 다음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한네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불거지는 단계이다. 그다음으로, 불만과 의혹이 상호 주관적 확인을 거치며 공식적인 판단으로 확립되는 단계이다. 그러면, 집단은 수집된 해석을 부정적으로 수용하여 직접적인 처벌로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 그 대상에 찍히는 낙인은 철저한 검증보다는 반복되는 말과 시선 내지는 집단적 정서의 동조를 통해 시행된다. 희생양은 ‘실제로 유죄인 자’가 아니라 ‘유죄일 수밖에 없는 자’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희생양 표지와 낙인의 효과

그동안 <한네의 승천>이 민속 의례의 구조를 수용한 사례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은, 희생양으로서 낙인의 형성과 그 의미를 더욱 확대할 여지를 남긴다. <한네의 승천>은 동제(마을굿)로 상징되는 집단 차원의 행사를 극 구조에 원용한 작품으로 언급되고 있고,⁹ 나아가 설화·탈춤·전통 담론·불교적 윤회 세계관과도 연관하여 해석되고 있다.¹⁰ 이러한 선행 관점의 맥락에서 보면, 한네에 대한 타자화는 공동체가 갈등과 해소를 염원하는 의례적 문법과 결부될 가능성을 애초부터 포괄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공동체의 의례와 집단 의식 속에서 한네는 시작부터 사회적 비난이라는 단순한 대상을 넘

9 김승옥은 <한네의 승천>에서 ‘압제당하는 여인의 투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부락제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승옥, 앞의 논문(1991), 77~88쪽.

10 裴源龍, 앞의 논문(1994), 228~243쪽.

어, 자기 균열을 봉합해야 하는 집단 공동체의 명백한 희생양일 수 있다.

한네에게 부여된 텍스트상의 희생양 표지는 매우 중층적이다. 우선적으로 가시화되는 표지는 이방인이라는 징표였다. 여기에 미모가 빼어나서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신분적으로는 술집 여인(몸 파는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라는 점도 희생양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매우 흡족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에서 그녀를 희생양으로 지목하여 처벌을 진행할 경우, 만명을 제외한다면 해당 처벌을 적극적으로 막을 협력자가 부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이질적 특성, 미인이라는 빼어난 자질, 하층민이라는 예외적 위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만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는 약자이자 여성이었으며 비천한 신분이자 결정적 차이를 내포한 적임자였다.

희생양 표지는 비정상적 상태와 이방인으로 대별된다.¹¹ 만명에 의해 무단으로 마을에 입성한 한네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한 이방인이었는데, 동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무단 침입은 공동체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들에게 동제 기간은 신성한 기간으로서 성(聖)의 도래 기간이어야 했다.¹² 그럼에도 집단(마을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한 외부인의 무단 침범은, 이러한 신성한 시간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네의 출현은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의 균열에 대해 핑곗거리를 제공했다.

11 김남석,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희생제의 연구」, 『한국학연구』 15(2001), 197~198쪽.

12 희생 의례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질서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희생 의례는 의례를 행하는 집단에게 세계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신성한 사건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의례를 통해 집단은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믿는다. 미르체아 엘리아데(지), 이동하(역), 『성과 속』(서울: 학민사, 2006).

전술한 대로, 한네가 만명 모친의 환신(幻身)이거나 재림(再臨)이라면, 그녀는 이미 한 번 추방된 존재이다. 만명 모친은 만명을 두고 사라진 것처럼 설정되었지만, 실상은 만명을 살리기 위하여 마을에서 축출된 상황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한다. 만명 모친이 사라졌을 때만 어린 만명이 생존할 수 있었던 당시 주변 여건과 생존 환경은, 그녀가 자신의 추방(축출) 조건을 암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희생양 처벌 가운데 추방이 대표적 형벌이라고 할 때,¹³ 만명의 모친으로서 한네란 결국 추방된 전신을 재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¹⁴

이처럼 공동체가 겪는 위기의 기간에 한네는 경계 바깥에 유입된 존재로 낙인찍혀, 동제와 질서에 균열과 오염을 가하는 존재로 적대시된다. 그리고 등장(투신)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며 끊임없이 그녀에게 가해졌던 도덕적·관습적·사회적·심리적·상징적 낙인은, 결국 도덕적 언어, 관습적 언어, 집단 감정의 언어와 서로 포개지며 한네를 더 이상 집단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희생양 낙인이 성립하면, 집단적 가해(처벌)는 매우 수월하게 특정 대상을 지목할 수 있다. 희생양 이론을 통해 확인된 인류 문명사적 주요 통찰 중 하나는 폭력성이 본래 무질서하게 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될 때 오히려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구실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¹⁵

13 김현,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66~67쪽.

14 추방은 대표적인 박해 행위이며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강력한 폭력의 형태이므로 박해 대상은 난민의 삶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김남식,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1(2007), 37~59쪽.

15 엘리야스 카네티에 의하면, 박해군중은 결집의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생성되며 생성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박해 대상에 대해 우월한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더 맹렬한 성장 속도를 내보인다. 엘리야스 카네티(저), 강두식(역), 『군중과 권력』(서울: 학원사, 1982), 50~53쪽.

모방 요구와 무차별화 범죄로 인해 갈등을 겪던 구성원들은 특정 인물-희생양을 향한 합의된 행위를 통해 일순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동일 입장의 현실적 실행 방안은, 집단이 합의한 폭력성의 표출로 나타난다. 이러한 폭력성 표출은 집단 내부의 긴장과 분열을 비록 일시적이지만 외부로 방출하는 효과를 거둔다. 집단이 집단 자체를 향하여 위태로운 파괴력을 버르던 순간을 이러한 폭력성 방출이 무마시키고 적당한 외부 개체로 낙인찍힌 자를 선별하여 집단의 적대감을 쏟아붓는 형국을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의 붕괴와 거대한 마찰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내부의 논리를 원용하여, 다수를 향한 다수의 폭력이 특정 대상으로 선회할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집단 내부의 거대한 상호 갈등은 효과적으로 제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를 향한 다수의 위협’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일시적 해소’로 폭력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다수가 포함된 집단은 자신을 일종의 전체로 재인식할 수 있는 시각과 시간을 재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중이 기억하는 의례는 이러한 계기와 시간의 재림으로 설명될 수 있고, 최초의 사건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공동체의 기억을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군중에게 공동 의례는 동참자들이 합의하는 질서의 도래와 집단의 결속을 의미한다.¹⁶ 〈한네의 승천〉에서 한네의 처벌이 마을 동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러한 질서의 도래나 집단의 결속이 궁극적으로 과거에 진행되었을 희생양에 대한 반복적 처벌과 그 기억에 바탕을 둔 공동 의례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네의 승천〉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폭력의 집중 현상은 바로 이러한 포괄적 메커니즘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다. 한네를 둘러싼 의혹과 불만

16 프로이트(저), 김종업(역), 『토텐과 타부』(서울: 문예마당, 1995), 194~200쪽.

그리고 불편함과 거리감이 누적되면,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폭력은 점차 한 네라는 특정 대상에게 집중될 기회를 노린다. 이때 개개인의 불만은 이제 더 이상 각각의 분명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때는 이미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에 도달해 있다. 실제로 마을 제사가 임박하면 해당 시기의 예민함, 각자의 정서적 갈등, 기존 관계의 과열 위기, 제의에 대한 우려와 실패에 대한 긴장, 규범의 위반(마을 바깥으로 탈출)과 그에 따른 불신감 등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위기의식까지 보태져서 한네라는 인물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되는 상황이 조성된다.

이때 한네는 해당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라기보다 원인을 대신 떠맡는 존재로 변모한다. 이 전가의 순간에 희생양 메커니즘은 발동하고 집단의 박해는 내부의 승인과 제의적 명분을 확보한다. 당연하게도 공동체는 한네를 처벌함으로써, 자기 내부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고 믿는 전제 역시 마련된다.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일단락하는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에게 희생양은 지극히 유용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희생양의 존재는 다른 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반드시 고대 사회나 원시 부족 공동체가 아니라고 해도, 한 집단이 내부의 갈등과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희생양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때 해당 집단은 자체 문제나 내부 알력, 나아가서 특정 죄목을 일부 인물(들)에게 전가하고 해당 인물(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집단 내 정화를 추진한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종교적 의례뿐 아니라 정치 담론, 사회적 갈등, 문학 서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영진 문학에서는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빈번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나타나는데, 〈한네의 승천〉에서 이러한 특징은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 작품에서 과거 제주가 저지른 죄악(성폭력), 어린 만명에 대한 제주 가족의 학대

(머슴살이), 마을 아낙 쇠돌네의 일방적 욕망(재혼), 한네의 거취에 대한 제주 부인의 불만, 만명에 대한 제주 아들의 질투와 대결 의식, 만명 모친에 대한 주민들의 죄책감, 그리고 현재 제주가 앓고 있는 병과 다시 저지른 범죄(강간), 마지막으로 만명의 살인 혐의 등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일탈에 대한 책임 추궁은 결국 희생양에게 향하는 공동체 처벌의 근거로 작용한다. 공동체 내부의 크고 작은 알력이나 내외의 마찰이 결국 한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집단 합의의 초석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희생양 메커니즘의 작동에 동의하는 학자나 사상가들은 희생 구조가 인간 사회의 상징체계 내에 심층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문학 역시 이러한 구조를 서사적으로 도용하는 데에 익숙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제주 포함)의 압박은 결국 한네의 자살로 귀결된다. 한네는 마을에 처음 등장할 때처럼 폭포(선녀담)에서 다시 투신을 시도하고, 그녀의 절대적 의지에 의해 두 번째 투신이 실행되면서 만명조차 이 죽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 한네의 투신은, ‘아노미적 자살’로도 이해될 수 있다.¹⁷ 자살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는 ‘가정적인 요인’이 포함되는데,¹⁸ 한네의 자살은 만명과의 관계 단절이나 제주와의 은원 청산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다. 한네의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아노미 상태를 강박한 공동체의 암묵적 처벌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안 중 하나는 공동체 폭력이 반드시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발현으로만 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희생양 형성 과정에서, 폭력은 언어적·상징적·정서적 차원에서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흔하다. 누군가

17 에밀 뒤르켐(저), 민문홍(역), 『사회분업론』(서울: 아카넷, 2012).

18 유미, 「Anne Sexton의 Love Poems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 효과: Émile Durkheim의 ‘Anomie’와 Lacan의 ‘Signifiant’」, 『영어권문화연구』 8-3(2015), 151~153쪽.

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배제하고, 비난하고, 침묵 속에 고립시키는 과정 자체가 간접적 폭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 폭력은 이후 물리적 제거나 사회적 추방, 혹은 의례적 처분의 형식으로 심화될 수 있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법적 진실이나 객관적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집단 감정의 응축과 해소를 우선시한다. 그 결과 공동체는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이 폭력적이라는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조율되며, 오히려 공동체를 수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방식을 학습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네에게 집중되는 폭력은 공동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오랫동안 반복해 온 자기방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네를 향한 폭력이 집중되고 가중될수록, 공동체는 점차 자기 선택과 처벌이 옳았다는 확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희생양이 강도 높게 처벌될수록 오히려 더 그 대상자를 유죄로 보이게 만드는 역설과도 통한다. 이렇게 되면 폭력의 실행 자체가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 한네가 처벌받고 있으므로 한네는 문제적 인물일 수밖에 없다는 순환 논리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희생양 메커니즘은 집단 심리의 자체적 강화를 통해 더욱 격하게 작동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작동 속에서 희생양은 자기변호의 기회와 논리를 상실하기 일쑤이다. 집단이 단일한 의지와 해석(판단)을 공유하는 순간, 희생양의 말은 더 이상은 증언이나 방어 논리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네의 비극성은 이러한 침묵과 수궁 속에서 심화된다. 희생양으로서 희생된다는 사실도 비극적이지만, 희생양을 둘러싼 해석(판단)의 장 전체가 타인들에 의해 점유되어 암묵적인 자기 처벌을 강요하는 점 역시 비극적이다. 이러한 처지의 한네는 자신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마을로 오기 전 고초(사창업)를 겪은 한네가 자신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선녀담에 몸을 던진 바 있었는데, 만명에 의해 구조된 이후에 자기 정화의 논리는 다시

작동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은 순환 논리에 갇히고 만다. 이때 그녀를 두 번째로 떠민 힘은 공동체 집단이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과 그 정화 논리였다.

3. 폭력의 정당화와 승천 신화

희생양 메커니즘의 마지막 단계는 폭력(처벌)의 정당화와 그 기록의 신화화이다. 공동체는 희생을 통해 기존 질서를 회복한 후, 그 희생을 공동체를 구한 사건으로 기억하고자 기억을 조작한다. 이때 희생자는 모순적인 이중 지위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 희생(제)의 전 희생양은 공동체의 불행을 초래한 위험한 존재였지만, 질서 회복 이후의 희생양은 평화를 구현한 신성한 존재로 재규정된다.

이러한 모순적 이중성 때문에 희생양은 비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성화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데, 집단 폭력에 의해 살해되거나 추방된 피해자가 사후에 신성화되면서 공동체는 집단 폭력의 행사를 망각하거나 그 기억을 위장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해당 사건을 제의나 신화의 형태로 미화하여 기록한 다음, 반복 재생하여 그 의미를 신화화하려 한다.

〈한네의 승천〉은 그 제목부터 신화화의 논리와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승천’이라는 표현에는 한 여인의 파괴와 희생양 제거 사건을 ‘상승’과 ‘초월’의 사건으로 변모시켜 이해하려는 의지가 깊게 투영되어 있다. 이 표현은 서사적 변환에서 필요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 만일 한네의 종말(투신)이 오로지 죽음·추방·파멸로만 제시되었다면, 공동체가 자행한 폭력의 잔혹성은 은폐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승천’으로 명명되고 그 미학적 변환을 담보하는 순간, 공동체의 폭력은 초월적 의미를 확보하고 미학적 위장



그림1-권력자의 욕구에
침탈당하는 한네(권력자
의 소유 의지)



그림2-집단의 압박에 투
신하는 한네(공동체의 정
화 요구)

의 외피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표현(언어)은 폭력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체는 자기 보존을 위해 한 인물에게 명분으로서 책임을 덧씌우고 끝내 자살(투신)로 몰고 갔다는 기억 자체를 삭제하려 한다. 오히려 해당 인물(희생양)의 행위가 더 깊은 차원의 의미망을 획득하고 존재의 위상을 더 높은 지향점을 향해 확보하는 역사적 기억으로 고쳐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희생양에 가해진 실제 폭력성(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처참한 기억의 자리를 숭고한 의의와 정화의 감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승천’은 희생자의 고통을 삭제하고 폭력의 흔적을 무화하는 표현인 동시에, 공동체가 자기 폭력을 건넬 수 있도록 다시 서사화하는 행위인 셈이다.

여기에 〈한네의 승천〉이 전통 담론, 민속 의례, 한국적 정체성 모색과 관련하여 ‘한국적인 것’의 발현으로 주로 논의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네의 신화화(승천의 논리)는 개인의 죽음을 넘어 공동체적 상징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담보한 논리였다고 해야 한다. 민속 의식과 의례 구조에서 희생은 단순한 제거나 가벼운 축출이 아니라, 정화·순환·갱신의 의미(망)를 강

도 높게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한네의 희생이 공동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수행한 폭력적 행위임에도, 〈한네의 승천〉의 서사에서는 오히려 질서 회복과 정신적 고양의 계기로 재의미화될 수 있었다. 이 경우 공동체는 희생을 통해 스스로를 더 순수하고 통합된 집단으로 상상할 자격을 소유하게 되며, 한네는 그 상상을 가능하게 한 매개물로 격상하게 된다. 결국 한네의 신화화란 희생자의 존엄을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폭력을 역사적·의례적·서사적·영화적 의미 속에 봉합하는 미화 행위이다.

〈한네의 승천〉에서 한네라는 희생양 형성 과정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공동체는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세한 차이를 내포한 특정 인물을 주목한다. 다음으로, 그 차이는 공동체 위기의 원인이라는 해석을 부여받으며 희생양 표지 혹은 박해 대상의 낙인으로 고착된다. 이어, 공동체의 다양한 적대감과 처벌 행위가 해당 인물(들)에게 수렴하면서, 알력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하던 구성원들이 오히려 동일감과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인물의 제거 혹은 몰락은 공동체 질서 회복의 계기로 해석되며, 이때 사용된 폭력은 정화와 초월의 의미 속에서 은폐된다. 이 전체 과정은 희생양 메커니즘의 전형적 진행 과정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따라서 〈한네의 승천〉은 개인의 비극을 재현하는 작품을 넘어 공동체가 어떻게 폭력을 조직하고 그 폭력을 다시 신성한 의미로 은폐하는지를 드러내는 텍스트로 재독해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한네의 타자화는 우연히 발생한 소외 현상이 아니다. 그녀의 소외는 공동체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첫 단계이며, 그

19) 박진태, 「전북 지역 민속극에 들어있는 속죄양과 희생양」, 『고전문학과 교육』 11(2006), 328~336쪽; 임장혁, 「황해도굿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모의사냥과 동물공회를 중심으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42~4(2009), 137~143쪽.

녀를 향한 폭력의 집중은 분열된 공동체가 자신을 재통합하는 다음 단계이고, 희생의 정당화와 신화화는 그 폭력을 기억 가능한 질서의 서사로 전환하는 최종 단계이다. 따라서 <한네의 승천>에서 제시하는 ‘승천’은 숭고한 종교적 표지가 아니라, 공동체 폭력이 스스로 정당화하는 정교한 언어적 미화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이 작품이 담보하는 비판적 의미가 노출된다. 작품은 겉으로는 희생을 성화하는 듯 보이지만, 그 서사 구조를 세부적으로 파헤치면 오히려 특정 개인을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추방하고 다시 신성화하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IV. 희생양으로서 만명의 위상과 의미

1. 구성원과 외부인의 경계적 위치

<한네의 승천>이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해독될 때, 만명 역시 또 하나의 희생양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희생양 메커니즘은 공동체 내부에서 증폭되는 갈등과 불안을 특정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 이 작동 과정에서 희생양은 공동체 위기를 설명하는 상징적 존재로 전환되며, 공동체는 희생양의 제거(추방) 또는 희생(자살)을 통해 한시적일지라도 질서 회복을 이룩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단일한 희생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공동체 내부의 갈등 구조에 따라 복수의 희생양이 생성되기도 한다. 특히 공동체가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희생양은 반복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반복은 집단이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한층 분명하게 입증하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할 때, <한네의 승천>에서 만명은 주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한네의 죽음을 둘러싼 주변 인물에 그치지 않고, 집단의 폭력적 구조가 반복적으로 인물(들)에게 전이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중요한 인물로 상정된다. 우선, 만명의 위치를 살필 수 있다. 전술한 대로 그는 마을 내부에 속한 존재이면서도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는 경계(적) 위치를 점유한 인물이었다. 그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고, 그의 행동은 마을 밖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마을 바깥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동반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그 질서에 완전하게 구속되지 않은 인물인데, 이러한 만명의 경계성이 그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희생양은 공동체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일정한 차이를 지닌 존재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은 집단의 문제를 외부로 전가하는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²⁰

만명의 위치는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를 통해 조명될 수 있다. 예외 상태는 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²¹ 이때 법(관습) 체제에서 배제된 존재는 흔히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 규정되었는데,²² 호모 사케르는 공동체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 결과 공동체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는 대상이다.

20 이종원,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르네 지라르와 조르주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8(2016), 631~641쪽.

21 표광민, 「주권 해체를 향한 아감벤의 예외상태론」, 『사회과학연구』 37-1(2011), 5~9쪽.

22 조르조 아감벤(저), 박진우(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서울: 새물결, 2008); 김재철, 「아감벤의 공간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평파이론』 23-2(2018), 83쪽.

만명의 상황은 호모 사케르의 처지와 매우 흡사하다. 그 역시 공동체의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이지만,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곤 하는 인물이다. 공동체 내부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만명은 점차 질서의 주변으로 밀려나며, 그에 대한 비난과 의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보호 체계는 작동을 멈춘다.

만명과 집단 사이의 이러한 거리감은 한네가 등장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은 만명의 모친이 마을을 떠난 때로 거슬러 오른다. 어린 시절 만명은 마을 최고 권력자에 예속되어 고생을 겪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길은 요원했고, 어느 정도 장성하자 자신의 옛 터전(과거 모친과 함께 기거하던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감행했다.

그러다가 만명은 한네의 생명과 처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가시적으로 희생양 반열에 함께 진입한다. 그 역시 잠시 기거의 유예를 얻어 마을 외곽에 머물 시간을 허락받기는 했지만, 제사가 끝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직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만명)과 집단(마을 사람들)의 관계는 개인적 갈등 관계라기보다, 혼란에 처한 공동체가 호모 사케르를 예외적 위치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단계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면 만명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공동체 질서의 예외적 위치에 예속된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만명의 타자화와 공동체의 압력

만명의 상황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만명의 타자화는 공동체 내부의 긴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만명이 지닌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이 단순한 특이성으로 인식되었지만, 집단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만명의 특이성은 점차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집단은 만명의 선택이나 태도를 공동체 질서를 동요시키는 위험 요소로 해석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해석은 점차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마을 전체의 의견으로 고착된다. 이 과정에서 만명은 공동체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설명하는 상징적 존재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만명은 실제로 공동체의 위기와는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은 만명을 위기를 조장하는 적대적 존재로 규정하고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의 계기는 당면한 제의(제사)와 관련이 깊다.

집단적 규율을 중시하는 공동체에서 민간 신앙에 가까운 종교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결속시키는 사회적 장치에 가깝다. 토테미즘 연구를 통해, 종교의 핵심이 ‘성스러운 것(the sacred, 신성)’과 ‘세속적인 것(the profane, 세속)’의 구분에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집단 의례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견해가 피력된 바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거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집단적 의례와 상징을 통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재확인하며, 재확인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은 집단적 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 속에서 공동체적 의미로 전환된다. 이때 숭상되는 종교적 상징이나 신성한 대상은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공동체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까우며, 종교 의례는 공동체가 자체 질서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행위에 더 근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밀 뒤르켐은 종교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는데, 그의 견해는 희생 의례(종교 의식)와 공동체 결속(사회 체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²³

이러한 종교 제례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은 〈한네의 승천〉에서 진행되는 동제(제의)와 근본적으로 상통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동제는 그 자체로 집단적 질서의 구현이며 공동체 정신의 재확인(함양)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동

23 집단 의례와 관련된 뒤르켐의 개념은 다음을 참조했다. 에밀 뒤르켐(저), 민혜숙·노치준(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서울: 한길사, 2020).

제에서 섬기는 신이 누구이고, 그 연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도, 이러한 유사성을 한결 강화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동제는 신과 기복보다는 집단(마을)과 공동체(마을 사람들) 그리고 질서(체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용의 장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동제를 추진하고 추렴을 서로 거들며 나아가서 제의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을 실행하고 있다. 마을 바깥의 외부인 역시 이러한 동제의 성격을 알고 있으며, 동제의 기간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이면서도 이러한 동참을 거절하는 인물이 만명이다.

만명은 외지인을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금기의 기간을 존중하지 않으려 했고, 공동 추렴 과정에서도 가난을 핑계로 어떠한 문물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한네가 자신의 치마를 내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추렴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네의 치마를 구해야 한다는 구실로 금족령을 어기고 마을 바깥으로 외출을 감행했다. 외출한 이후에도 금기(도박)를 어겼고, 살인을 저지르며 중대한 범죄까지 저질렀다. 만명의 행동에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애초부터 금기의 준수에 관심이 없었고, 마을 질서로서의 동제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무단 외출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술, 도박, 여자)과 수시로 접촉하며, ‘성스러운 것(the sacred)’과 ‘세속적인 것(the profane)’의 구분 자체를 무화시켰다.²⁴

이러한 만명의 행동에 마을 공동체는 분노와 우려를 드러냈다. 낯선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만명의 집으로 몰려들어 여인을 추방하라고 요구했고, 추렴 과정에서 어떤 것도 기부하려 하지 않을 때는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며 여인의 치마를 요구했다. 제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에는 그가 마을

24 만명의 행동은 뒤르케임의 성스러움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심형준, 「섹슈얼리티의 성스러움: 금기 너머의 더럽고 위험한 성스러움과 정상(正當) 섹슈얼리티」, 『종교문화비평』 23(2013), 18~21쪽.

내부로 무단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는 대열을 이루어 그를 잡으려 몰려들었다.

만명은 마을의 공동 의식을 거부하려 한 것이고, 마을 공동체는 그러한 만명을 처벌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만명의 행동 방향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거리감을 표명하고 있다. 만명은 애초부터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질서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고, 제의에 대한 노골적 거부를 통해 집단적 열광에 매몰되지 않고 냉소적 태도를 고수하려 하였다. 이러한 만명의 태도나 입장은, 마을 공동체의 내부인이면서 외부인이고, 구성원의 일원이면서 이방인에 가까운 그의 이중적 위치를 재확인시킨다고 하겠다.

특히 만명의 사례에서는, 한네 사건 이후 공동체 내부에 남아 있는 긴장과 불안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희생양 메커니즘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공동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연속적인 갈등이 잠재될 경우—또 다른 희생양이 상정되곤 한다. 만명을 둘러싼 부정적 해석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촉발되고 있으며, 그러자 마을 공동체는 만명의 처벌을 통해 여전히 잔존하는 집단 내 긴장을 마저 무마하려 한다. 직접적으로는 살인 혐의로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마을 자체의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²⁵

전통 사회에서 발견되는 금기(taboo)나 오염은 단순한 미신이나 비합리적 신앙으로 이해되기보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상징적 체계로 해석되기도 한다.²⁶ ‘불결’하거나 ‘부정’하다고 규정되는 것은, 그 속성이 기존 질서와 분

25 이지현은 ‘한네를 닮은 여성들’의 등장을 ‘환상 같은 현실적 장면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빨간 옷을 입은 술집 작부의 죽음을 꿈과 현실의 혼란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이지현, 「한네의 승전」,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https://www.kmdb.or.kr>), 2020.

26 메리 더글라스(저), 유제분·이훈상(역),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서울: 현대미학사, 1997).

류 체계에서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염(불결, 부정)은 한 사회가 정한 질서와 체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만명과 한네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존재로, 결과적으로는 마을 질서와 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오염원’일 수밖에 없다. 웅당 이러한 존재에게는 더럽다는 평가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쇠돌네가 한네를 술집 여자로 몰아붙이거나 한네가 자신을 정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이를 위해 깨끗한 선녀담에 몸을 정화해야 한다고 믿는 행위는 모두 이러한 오염의 철학에 기반한 인식과 다르지 않다. 군중과 희생양 모두 이러한 불결/청결의 개념과 분리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오염의 표상인 한네와 그 한네를 오히려 정결한 존재로 격상시키려는 만명은 마을 질서(인식적 행위)를 어지럽히는 존재이므로, 어떻게든 제거(정리)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만명에게 가해지는 공동체 폭력 역시 집단적 폭력 구조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때 만명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은 구성원들을 동일 집단으로 결속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술한 대로 이러한 결속은 공동체 내부 갈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명을 향한 집단적 비난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마저 잊도록 만들며, 한뜻으로 동일 대상에 대해 동일 반감을 공유하도록 만든다. 심지어 만명을 짝사랑하던 여인마저 이 행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거대한 박해군중을 형성한다.²⁷

웅당 이러한 박해 과정에서 만명은 공동체의 문제를 떠안는 존재로 변모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과 갈등은 더 이상 개별적인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 해당 문제들은 만명이라는 한 인물에게 귀속되는 동질적 문제로 수렴된다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다시 발동한다. 한네에게

27 엘리야스 카네티(저), 강두식(역), 앞의 책(1982), 50~53쪽.

발동했던 메커니즘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3. 군중의 박해와 희생제의를 의미

희생양으로서 만명의 입장은 공동체 내부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구조로 환원시키게 되며, 마을 공동체로서는 만명을 통해 자신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했다고 믿게 된다. 그러한 믿음을 지속하기 위하여,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는 박해군중으로의 변모를 주저하지 않는다.²⁸

전술한 대로, 희생양 메커니즘의 마지막 단계는 희생의 정당화와 희생 대상의 신화화이다. 공동체는 한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일시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그 희생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창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서사에서 희생양(일차적으로 한네)에게 가해진 교묘한 폭력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재해석된다. 기본적으로 만명의 처벌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림3-한네를 잡으러 만명의 집으로 난입한 마을 사람들



그림4-만명을 잡으러 한네의 거처로 출동한 마을 사람들

28 신현숙, 「군중의 현상학: 카네티의 『군중과 권력』을 중심으로」, 『카프카 연구』 35(2016), 113~115쪽.

다만 <한네의 승천>에서 만명에 대한 집단의 처벌(결과)은 분명하게 노정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만명을 잡으러 갔지만 만명은 잡히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제주가 언급하지만 만명은 최종적으로 실종 상태로만 남기 때문이다. 다만 만명은 끝내 한네를 구원하지 못했고, 한네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만명에게 한네는 자기보다 지고하고 정결한 존재라는 점에서, 한네의 희생(자살)은 만명 자신의 희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만명은 희생양으로서 간접적인 처벌을 이미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만명은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 역시 만명을 용납할 수 없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만명은 마을에서 더 이상 온전한 구성원으로 기거할 수 없고, 마을 사람들 역시 만명을 다시 공동체의 정상적 일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만명이 한네의 죽음을 정당한 처사 혹은 합의된 의견으로 받아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명에게 한네는 처음부터 지상의 인간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상의 인간이 그녀를 해하는 행위에 도저히 동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상의 선녀’를 떠나보내고 ‘지상의 인간’과 대립해야 한다고 믿는 만명과 달리, 마을 사람들은 액운과 불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네를 압박한 행위 자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기리고 기억하고 신성화할 필요를 창출한다. <한네의 승천>은 한네에 대한 기억의 기념화까지는 보여 주지 않지만, 제주의 죽음과 하늘의 분노를 통해 한네의 죽음에 관여한 마을 공동체의 경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는 한다.

게다가 <한네의 승천>에는 제례로서 마을 제의를 비중 있게 삽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거의 한네에 해당하는 사례로부터 만들어진 제의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감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제사 역시 과거 그러한 기억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제

주가 주재하는 제의에서 공동체의 소원을 비는 행위 역시 구성원 상호간의 알력과 마찰을 제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야 한다. 만명은 마을 공동체의 이기심과 은폐된 폭력성을 관찰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²⁹

결국 만명은 <한네의 승천>의 서사를 개별 공동체가 어떻게 희생양을 만들어 내고 그 희생을 통해 자체 질서를 유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폭로하는 비극의 구조로 격상시키는 또 다른 존재이다. 게다가 한네와 만명은 서로 다른 인물이지만 동일한 메커니즘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공통점도 보유한다. 이 두 인물이 자아내는 비극(성)은 공동체가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을 선택하고 제거하는 구조를 폭로하며, 동시에 그러한 구조가 공동체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마저 파헤친다. 그렇다면 <한네의 승천>에서 한네와 만명은 희생양 메커니즘이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반복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서사적 사례이자 증거가 아닐 수 없다.

V. ‘승천’의 의미와 ‘희생’의 신성화: 희생자의 신격화와 공간의 신성화

<한네의 승천>이라는 제목 자체는 서사의 중심 사건(한네의 죽음과 만명의 실종)을 ‘승천’이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 맥락을 형성한다. 이때 ‘승천’이라는 표현은 희생의 현실적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29 김윤미는 <한네의 승천>이 그리스 비극의 구조를 원용하지만 죄악을 신화의 영역으로 은폐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윤미, 앞의 논문(2008), 56~57쪽.

드러내기보다 그것을 초월적 의미로 전환하는 서사적 장치로 작용한다. 공동체가 희생양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 희생을 무차별 폭력으로 기억하지 않고 신화적·종교적 사건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명명 방식은 이러한 집단의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공동체는 자신들이 행사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희생자의 죽음을 신성한 사건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해석을 통해 폭력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당화하려 한 흔적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할 때 ‘승천’이라는 표현은 공동체가 희생자의 죽음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언어이자 신격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네의 승천〉에서도 이러한 신격화의 논리가 확인된다. 이 논리에 의거하면, 한네의 죽음과 만명의 실종은 초월적 세계로의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전환은 희생자의 고통을 숭고한 사건으로 포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한네는 공동체에 의해 제거된 인물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시킨 존재로 더욱 분명하게 기억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는 일종의 신성한 상징으로 탈각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만명의 어머니와 닮았고, 이로 인해 제주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존재라는 점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만명은 자신의 어머니와 닮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녀’라고 칭했고, 제주를 자신이 이방인 여인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확신했다. 적어도 두 사람에게 한네는 희생자의 고통을 안고 사라져 이제는 숭고한 대상으로 남은 어머니 혹은 여인의 환신과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효과는 한네가 과거 한 여인을 신성화한 존재와 다르지 않고, 기억 속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사실과 부합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희생자의 죽음은 공동체의 정화를 가능하게



그림5-오프닝 시퀀스에서 포착한 그림 속 선경



그림6-오프닝 시퀀스에서 포착한 유실된 신발

한 신성한 사건으로 재의미화된다. 〈한네의 승천〉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신성한 공간에서 진행하고자 했고, 그 ‘공간-선녀담’을 작품의 서두와 말미, 즉 오프닝 시퀀스와 클로징 시퀀스에 배치하고자 했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림 속 풍경은 그 자체로 이미 선경(仙境)과 다르지 않다. 카메라는 이러한 선경을 여기저기 헤집으면서, 현실과 분리된 신성한 공간을 포착해 나간다. 이어서 이러한 그림 속 선경에 못지않은 지상의 선경(산중 풍경)을 화면으로 불러온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오프닝 시퀀스에서 만명이 한네를 만나는 사건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 상황으로 조성되고, 속의 공간이 아닌 성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성의 현현으로 재현된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성스러운 것(the sacred)’과 ‘세속적인 것(the profane)’의 구분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⁰ 그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세계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경험하지 않고, 특정 장소나 사건에서 드러나는 신성한 현현(hierophany)을 통해 세계의 질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성스러운 현현은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

30 미르체아 엘리아데(저), 이동하(역), 앞의 책(2006).

며, 인간은 신성한 중심을 기준으로 자신의 세계를 조직한다. 그래서 세속적 인간은 세계를 균질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종교적 인간은 세계를 성스러운 중심과 세속적 주변으로 구조화하여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신화, 의례, 성스러운 공간, 종교적 시간 등을 분석하여, 종교가 인간이 세계의 의미와 질서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선녀담에 도착한 한네가 지상, 그러니까 세속의 공간(인간의 사회)에서 이미 짓눌리고 배척되어 결국 도망친 존재라고 한다면—즉 한네가 이미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된 희생양이라고 한다면—만명은 추방된 희생양이 성스러운 존재로 탈바꿈한 상황과 마주한 셈이다. 만명에게 보이는 신발은 그 자체로 세속과 분리된 존재의 현현을 의미한다.

만명은 신발을 잡고 신발의 주인을 구한 다음, 성의 공간에서 속의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전술한 대로, 마을 사람들은 성의 공간과 속의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사를 위해 설정한 성의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한네의 승천>은 성의 공간에서 속의 공간으로 이동하며, 신성한 위치에서 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한 한네를 조명하고자 한 셈이다.

다시 이 공간이 주목을 받는 시점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한네가 위기에 몰리고 그녀가 암묵적으로 희생양으로 내몰려 처벌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이다.³¹ 한네는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정화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고, 만명은 죽음의 위치에 처한 한네를 구해야 한다고 다시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프닝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다시 폭포에서 몸을 던지는 여인과 그 여인을 구하려

31 한네는 두 번째 투신 이전에 선녀담에 가기를 괴로워하고 마을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선녀담에서의 투신이 자의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진다.



그림7-클로징 신에서 다시 포착된 폭포의 선경
(폭포 위의 한네)



그림8-클로징 신에서 다시 포착된 유실된 신발
(사라진 한네)

는 남자로 조우한다. 하지만 두 번째 투신으로 한네는 현실에서 사라지고, 남자는 성화된 한 여인의 마지막을 목격한 이후 역시 사라진다.

〈한네의 승천〉에 클로징 시퀀스는 선녀담에서 한네의 투신과 남자의 목격담을 다루고 있고, 멀어지는 카메라를 통해 속의 세계에서 이탈하여 성의 세계와의 조우를 다시 담아내고 있다. 한네가 투신하고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면, 그녀가 사라진 선녀담은 속의 공간이 아닌 성의 공간으로 변화되며, 한네가 사라진 공간은 그 자체로 신성의 현현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두 공간, 즉 오프닝 시퀀스의 선녀담(그림 속 풍경)과 클로징 시퀀스의 선녀담은 동일 공간으로 성의 공간, 신성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네가 성의 공간을 나와(선녀담에서 첫 투신 후) 속의 공간(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은원의 공간)을 지나 다시 성의 공간(선녀담에서 재투신 후)으로 진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한네의 승천〉의 서사이자 목표였던 셈이다. 성화된 존재에서 희생양으로 그리고 다시 성화된 존재로 변모하는 한네의 모습은, 좁게는 한 마을의 희생제의를, 넓게는 인간 문명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성과 속의 공간으로 거듭 체화한 작품이 〈한네의 승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VI. 결론

이 연구는 <한네의 승천>을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 작품에 내재한 공동체 폭력의 구조와 희생의 신화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한네의 승천>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적 전통이나 민속적 의례 구조, 혹은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품의 문화/문학적 맥락을 밝히는 데에는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작품 속 갈등 구조와 공동체의 폭력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다분했다. 이에 이 연구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보편적 사회·문화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의 서사 구조를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네의 승천>이 증언하는 공동체의 폭력 구도와 그 은폐 정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네의 승천>의 서사는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안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 속 마을 공동체는 겉으로는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갈등과 불안이 누적된 상태였다. 이러한 내부 긴장은 제



그림9-오프닝 신 폭포와
'성'의 공간



그림10-클로징 신 폭포와
'성'의 공간

사의 준비 과정, 권력자의 도덕적 타락, 개인적 욕망의 충돌, 공동체 규범의 균열, 구성원 상호간 알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점차 증폭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신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석하고 무마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한네는 마을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인의 처지로 전락했다. 그녀가 마을 밖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이라는 점, 집단적 보호에서 벗어난 여성이라는 점, 그녀의 기거와 삶이 공동체 규범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네는 공동체의 불안을 투사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공동체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위기의 징표로 해석하며, 한네를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러한 지목 과정은 개인적 의혹과 불만이 반복적인 언어와 시선을 통해 확대되면서 집단적 합의로 굳어지는 양상을 띤다. 결국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갈등은 한네라는 단일한 대상에게 집중되며, 그녀는 공동체의 위기를 설명하는 상징적 존재로 고착된다.

이러한 폭력/희생의 구조는 르네 지라르가 설명한 희생양 메커니즘의 전형적인 과정과 밀접하게 부합한다. 공동체 내부의 무차별적인 갈등은 특정 인물을 향한 집단 폭력으로 수렴되며, 이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던 구성원들은 동일하게 복사된 감정을 공유하며 일시적인 결속을 경험한다. 그러다가 다수를 향한 다수의 폭력적 성향이 일인을 향한 다수의 폭력으로 물리적으로 전환되는 순간, 공동체는 내부 분열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재통합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네의 희생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한네뿐 아니라 만명 역시 공동체의 폭력 구조 속에서 희생양의 위치에 놓인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만명 역시 공동체 내부

에 속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구성원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제적 존재에 불과하며, 공동체 질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소외된 인물일 따름이다. 한네 사건 이후 공동체 내부에 남아 있는 긴장과 불안은 점차 만명에게 전이되며, 그는 공동체 질서에서 배제되는 또 하나의 희생양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희생양 생성의 반복적 과정은 공동체가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시적 안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진실을 암시한다.

한편 〈한네의 승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희생 이후 이루어지는 신화화 과정이다. 제목에서 나타나는 ‘승천’이라는 표현은 희생자의 죽음을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초월적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전환하는 서사적 매개와 상징으로 작동한다. 공동체는 희생을 통해 얻은 질서 회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희생자의 죽음을 숭고한 사건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행사한 폭력을 신화적 의미와 재맥락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한다. 그러나 희생자는 공동체의 불행을 초래한 위험한 존재로 비난받는 동시에,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온 신성한 존재로 재해석되는 모순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결국 〈한네의 승천〉은 개인의 비극을 묘사하는 작품이라기보다, 공동체가 내부의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희생양으로 설정하고 그 희생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구조를 드러내는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공동체가 어떻게 폭력을 조직하고 그것을 어떻게 신성의 의미로 재정위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한네의 승천〉은 공동체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폭력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네의 승천〉은 인간 사회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희생양을 형성하고 그 희생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지를 보여 주는 원형적 서사 구조를 폭로하는 작품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해석 관

점에서, 이 작품은 공동체와 폭력, 희생과 신화화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문학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근현대 연극과 영화 서사에 나타난 희생양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접근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1970년대라는 가혹한 시대와 검열의 환경에서 전통 담론 이외의 사상적 무게를 지닌 사례로 선택될 수 있었는지를 어렵게나마 암시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논저

- 권오만, 「오영진의 삼부작에 대하여: 구비문학과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8, 1972, 199~220쪽.
- 김남석,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희생제의 연구」, 『한국학연구』 15, 2001, 177~217쪽.
- 김남석,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1, 2007, 37~59쪽.
- 김승욱, 「〈한네의 승천(昇天)〉의 제의구조(祭儀構造)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105, 1991, 73~97쪽.
- 김윤미, 「〈한네의 승천〉에 나타난 한국적 영상의 의미 연구: 오영진의 시나리오와 하길 종의 영화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28, 2008, 43~71쪽.
- 김재철, 「아감벤의 공간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평과이론』 23-2, 2018, 67~92쪽.
- 김현,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 르네 지라르(저), 김진식·박무호(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1993.
- 르네 지라르(저), 김진식(역), 『희생양』, 서울: 민음사, 1998.
- 르네 지라르(저), 김치수·송의경(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2001.
- 메리 더글라스(저), 유제분·이훈상(역),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 서울: 현대미술사, 1997.
- 미르체아 엘리아데(저), 이동하(역), 『성과 속』, 서울: 학민사, 2006.
- 박진태, 「전북 지역 민속극에 들어있는 속죄양과 희생양」, 『고전문학과 교육』 11, 2006, 327~355쪽.
- 裴源龍, 「說話의 現代的 受容과 變容: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6, 1994, 209~245쪽.
- 서연호, 「웃음의 미학 혹은 비판적 투시」, 한국극예술학회(편), 『오영진』, 서울: 연극과인간, 2010.
- 신현숙, 「군중의 현상학: 카네티의 『군중과 권력』을 중심으로」, 『카프카 연구』 35, 2016, 77~125쪽.
- 심형준, 「섹슈얼리티의 성스러움: 금기 너머의 더럽고 위험한 성스러움과 정상(正常) 섹슈얼리티」, 『종교문화비평』 23, 2013, 15~46쪽.

안재석, 「새 세대가 만든 새 영화: '영상시대'의 작품 경향」, 『씨네포럼』 14, 2012, 417~441쪽.

에밀 뒤르켐(저), 민문홍(역), 『사회분업론』, 서울: 아카넷, 2012.

에밀 뒤르켐(저), 민혜숙·노치준(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한길사, 2020.

엘리아스 카네티(저), 강두식(역), 『군중과 권력』, 서울: 학원사, 1982.

유미, 「Anne Sexton의 Love Poems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 효과: Émile Durkheim의 'Anomie'와 Lacan의 'Signifiant」, 『영어권문화연구』 8-3, 2015, 151~174쪽.

유민영, 「정치에 희생된 인텔리 극작가」, 한국극예술학회(편), 『오영진』, 서울: 연극과인간, 2010.

이상우, 「오영진의 글쓰기와 민족주의: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한국극예술연구』 35, 2012, 125~154쪽.

이종원,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르네 지라르와 조르주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8, 2016, 629~654쪽.

임장혁, 「황해도곳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모의사냥과 동물공회를 중심으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42-4, 2009, 132~151쪽.

조르조 아감벤(저), 박진우(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2008.

조주현,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한국여성학』 24-4, 2008, 35~64쪽.

표광민, 「주권 해체를 향한 아감벤의 예외상태론」, 『사회과학연구』 37-1, 2011, 1~19쪽.

프로이트(저), 김종엽(역), 『토텐과 타부』, 서울: 문예마당, 1995.

2. 기타

이지현, 「한네의 승천」,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https://www.kmdb.or.kr>), 2020.

국문초록

이 연구는 오영진 작, 하길중 연출 〈한네의 승천〉에 나타난 공동체 갈등과 집단 폭력의 구조를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이 작품을 주로 한국적 전통이나 민속적 공동체 질서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작품에 내재한 공동체 폭력의 구조와 희생의 서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는 〈한네의 승천〉의 서사를 공동체 내부의 위기와 갈등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한네와 만명이 공동체의 불안을 수렴하는 희생양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작품의 결말에서 제시되는 ‘승천’의 의미를 검토하여, 희생자의 죽음이 공동체 질서 회복을 정당화하는 신화적 서사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네의 승천〉은 단순한 전통적 서사나 민속적 의례의 재현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특정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하고 그 폭력을 신화화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서사적 구조를 드러내는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오영진 작품에 나타난 공동체 폭력의 구조와 희생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6. 3. 11.

심사일 2026. 5. 2.

게재 확정일 2026. 5. 26.

주제어(keywords)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 mechanism), 공동체 폭력(communal violence), 〈한네의 승천〉(*The Ascension of Hanne*), 오영진(Oh Young-jin), 희생의 신화화(mythologization of sacrifice)

Abstract

The Violence of the Crowd and the Myth of Sacrifice: The Scapegoat Mechanism in *The Ascension of Hanne*

Kim, Namseok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communal conflict and collective violence depicted in *The Ascension of Hanne*, written by Oh Young-jin and directed by Ha Myung-jung, through René Girard's theory of the scapegoat mechanism.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interpreted this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tradition or as an expression of a folkloric communal order; however, such approaches have not sufficiently explained the structure of communal violence and the narrative of sacrifice embedded in the work. Accordingly, this study understands the narrative of *The Ascension of Hanne* as a process in which crises and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are concentrated on particular individuals, and examines how Hanne and Man-myeong are formed as scapegoats who absorb the anxieties of the community. It also investigates the meaning of the "ascension" presented at the end of the work, exploring how the death of the victim is reconstructed as a mythic narrative that justifies the restoration of communal order.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scension of Hanne* is not merely a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narrative or folkloric ritual, but a work that reveals a narrative structure of the scapegoat mechanism in which internal conflicts of the community are resolved through the sacrifice of a particular individual and the violence is subsequently mythologized. In doing so, this study seeks to shed new light on the structure of communal violence and the meaning of sacrifice in the works of Oh Young-jin.